[ 12월 10일 밤 ]

“와아! 이걸로 드디어 이번 주도 끝!!”

채아람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시원하게 기지개를 켰다.

밤에도 학생회 활동을 해서 그런지 나도 이번 주는 유난히 길었던 느낌이다.

아니면 평소에 안 하던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가?

“모두 고생하셨어요! 어우, 빨리 집에 가서 밀린 일 좀 끝내야지!”

“아람아. 그 전에 이번 주에 정해둔 목표부터 확인해야지.”

“아, 맞다. 뭐였죠?”

도 “세 명은 조각을 모아오는 거였고. 선생님은 평소처럼 응원하는 거였지!”

한 “그리고 너는 열쇠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어때? 성공했어?”

[ 퀘스트 아이템 체크 ]

=> 성공

“응. 조각 모아준 덕분에 만들었어.”

나는 미리 만들어뒀던 열쇠를 모두의 앞에 꺼냈다. 손가락 길이의 금색 열쇠. 자물쇠 종류는 이게 전부 열 수 있을 거다.

채 “오오. 딱 봐도 만능열쇠란 느낌이네요.”

한 “응. 캐쉬템 같이 생겼어.”

채 “…. 소원 언니.”

한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잖아!?”

고 “으흠. 정말로 작동할지는 해봐야 알겠는걸.”

“오늘 폐병원에 들러서 자물쇠가 열리는지만 확인하자.”

...

사람이 없는 골목에 덩그러니 있는 4층 높이의 폐건물. 전에는 병원이었다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병원의 흔적은 간판이 다였다.

[ ○○ 노인 요양병원 ]

다 죽어가는 색의 초록빛 간판은 기괴하기만 하다. 입구도 녹슨 쇠사슬로 칭칭 감겨있고, 근처엔 쓰레기와 폐자재가 버려져 있다. 관리가 안 된 지 오래 지난 걸로 보였다.

그래서인지 건물은 담력 체험이라고 해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공기를 풍기고 있었다.

채 “래솔 쌤이 거울로 봤던 곳 여기가 맞죠?”

도 “응. 저번에 와서 확인했었지?”

“넹. 근데 여전히 오싹하네요. 겨울이라 추워서 그런가.”

채아람이 장난치듯 몸을 떨었다.

추워서 오싹한 건 아니겠지. 겨울의 추위와는 다르다. 설명 못 할 불안감은 나도 느끼고 있었다.

“저기. 여기는 어쩌다가 망한 거예요?”

한 “그거야 장사가 잘 안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문 닫은 거 아냐?”

채 “그러겠죠? 망한 지도 좀 된 것 같고.”

도 “아! 혹시 여기가….”

“아하하. 아니겠지. 아무것도 아냐.”

“뭔데요, 쌤! 말하다 마는 게 더 찝찝해요!”

“아으으. 아람아 옆구리 찌르지 마.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라 안 하려고 한 거야.”

도래솔 선생님은 채아람의 콕콕 찌르기에 들었던 사실을 실토했다.

“으으. 알았어! 말할게! 그 있지.”

“사실 여기 되게 인기가 많았었거든.”

“보통 요양병원은 시골에 많은데 여긴 도심에 있잖아.”

“면회 오기도 좋고, 시설도 좋은 편이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다고 들었어.”

“그런데 왜 망했어요?”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걸 직접 알지 못하면 더 두려워질 것 같아 나는 도래솔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여기 입원한 누가 불을 질러서 자살했거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아서 입원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대. 화재 때문에 건물도 망가졌고. 사람들도 관리 부실이라고 욕해서.”

“결국 문을 닫았다고 들었어.”

“......나, 나는 말 안 한다고 했다!? 진짜로 안 하려고 했는데 아람이가 캐물은 거야!?”

도래솔 선생님이 싸해진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손을 휘저었다.

자살. 그것도 불을 질러서라니. 잘 보니 건물 벽에는 화마에 그을린 검은 자국이 남아있었다.

채 “도래솔 선생님 때문에 더 무서워졌는데요….”

도 “히잉...나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고 “괜찮아. 오늘은 들어가지 않을 거야. 자물쇠만 확인해볼 거니까.”

“후배. 부탁할게.”

은혜 선배의 말에 폐병원 입구로 걸어갔다. 건물 입구를 쇠사슬과 함께 칭칭 감아둔 커다란 자물쇠.

열쇠를 자물쇠 입구에 가까이 대자, 열쇠는 알아서 크기를 맞추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딸깍.

자물쇠는 간단히 풀렸다.

“풀렸어요.”

“응. 고마워. 일단은 다시 잠가줄래?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곤란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자물쇠를 잠그고 열쇠를 품에 넣었다.

한 “은혜 선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고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밤에 다시 오자.”

한 “토요일이니까 다음날 학교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좋네요.”

채 “오늘은 안 들어가는 거죠? 휴우.”

한 “그래봤자 내일 갈 텐데 뭘 안심해?”

채 “매도 내일 맞는 게 낫잖아요.”

고 “후후. 그럼 언제 맞을지 정할까? 내일 밤. 이때쯤 만나는 건 어때?”

은혜 선배의 제안에 다들 동의했다.

“좋아. 폐병원 앞에서 만나는 걸로 하자. 아, 그리고 도래솔 선생님은 안 오셔도 돼요.”

“으응!? 왜!? 왜 나만!?”

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래솔 선생님은 어차피 미지 못 보잖아요. 혼자 허둥지둥 댈 것 같고.”

도 “나, 그래도 어른이다? 선생님이다? 꽤 믿음직하잖니?”

“.......”

나를 포함한 네 명 모두, ‘그다지.’라고 생각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착각이겠지.

“도래솔 선생님은 최후의 보루에요. 날이 밝아도 연락이 없으면 112나 119에 신고하고 저희를 찾으러 와주세요.”

“학생들이 흉가 체험에 갔다가 연락이 안 된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면 경찰도 와줄 거예요. 알겠죠?”

“으응. 그 대신 꼭 연락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연락이 늦으면 112, 바로 부를 거야?”

“네. 들어가기 전에도 도래솔 선생님에게 연락하고 할게요.”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자.”

나는 폐병원을 뒤로하면서도 두려운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처음 미지와 만났을 때 느꼈던 감각.

이제는 미지를 봐도 두렵지 않았는데.

이 폐병원 안에서는 그것이 느껴졌다.

대체 저 안에는 뭐가 있는 걸까.